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도의 길만 걸겠습니다”


한미필름테크 변창규사장. 그는 원래 금융인이었다. 변사장이 인쇄제판용 필름 생산 업체인 한미필름테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IMF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사표를 내고 부도상태에 놓여 있던 회사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불과 몇 년만에 반듯한 회사로 키웠다.

7개에 이르는 특허를 보유하고 충북에 대규모 공장도 신축했다. 2002년 매출액이 60억원에 이르고 수출 길도 열었다. 2003년의 매출 목표는 180억원이다. 변사장을 만나 금융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동기와 인쇄용 필름 생산으로 창업 4년여 만에 성공한 사업가로 평가받게 된 배경,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한미필름테크를 인수(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미필름테크(주)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무래도 IMF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 국민이 IMF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던 98년, 주변으로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은행에 있으면서도 대학시절부터 가져왔던 중소기업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이런 제의를 받고 보니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높은 보수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은행을 그만 둔다고 하니 주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창업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때 마침 은행에서 명예퇴직제도가 시작되고 해서 자의든 타의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서 12년 간의 은행원 생활을 접고 명예퇴직금을 보태 한미필름테크를 설립했습니다. 결국 IMF를 통해 중소기업가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된 거죠.

인수(설립)한 후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문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수이전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기술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있었지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니다. 연구개발 단계였지요. 그리고 노후된 생산설비도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기간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최첨단설비의 공장을 준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술개발을 빠른 기간내 완료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업무제휴를 통해 세계 메이저사들보다 우수한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전임직원이 기술개발에 매달렸지요. 그래서 개발된 기술들이 대부분 국내 최초의 신기술들입니다.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99년에 설립된 부설연구소는 신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직원의 30% 이상이 연구원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신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더불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생산설비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필름관련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는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코닥이나 후지 등 메이저사들의 생산공장은 기술유출 우려로 외부인사들의 방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자체연구결과와 외부의 기술적인 지원으로 충북

음성에 최첨단의 전자동 생산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보유중인 특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쇄제판용 필름 중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출력필름의 특허인 ‘헬륨-네온 레이저 스캐너용 사진 감광필름의 제조방법’을 비롯하여 의료용 X-ray 필름의 특허인 ‘할로겐화은 사진용 포그 억제제 및 이를 이용한 의료용 엑스선 필름의 제조방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쇄제판용 명실용 필름의 제조방법’ 특허를 비롯하여 ‘의료용 MRI 필름’, ‘Digital Inkjet Photo Paper’ 등 감광필름과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감광필름의 세계시장은 코닥, 후지, 아그파 등 세계 4대 메이저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문, 잡지, 홍보물 등 모든 인쇄에 사용되는 필수소재인 인쇄제판용 필름과 환자의 흉부, 척추, 관절 등을 촬영하여 화상으로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필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지요. 저희 회사는 이를 수입대체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미필름테크는 명실밀착용필름, 출력필름, 암실필름 등 인쇄제판용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X-ray 필름은 곧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물, 실경, 실황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사진처럼 사실성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Desktop용 사진 출력 Digital Photo Paper를 비롯한 인화지와, 합성지, PVC 등 다양한 디지털 프린팅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기술 개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기업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99년에 설립된 저희 부설연구소는 신기술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직원의 30% 이상이 연구직원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국내 최초의 레이저스캐너필름, X-ray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했는데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품질의 제품은 제조기술과 더불어 안정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관건입니다. 저희 생산라인은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최첨단 코팅시스템입니다. 음성공장은 연간 3천6백만㎡의 생산능력으로 약 1,8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인쇄출력용 필름을 출시하게 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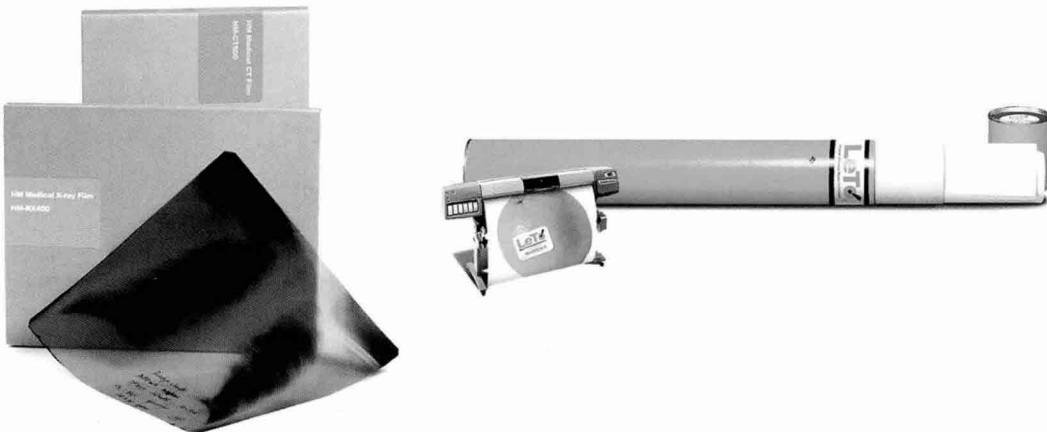
 전자 및 전자산업의 응용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쇄산업분야에서도 고화질, 고품질의 인쇄물을 얻기 위해 새로운 첨단 인쇄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미필름테크는 이러한 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인쇄용 출력필름을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초미립자의 할로겐화은을 이용한 인쇄출력용 필름(Laser Scanner Film)은 색 분해기능이 우수한 레이저 광원의 사용으로 기존의 인쇄용 필름보다 우수한 화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작업도 훨씬 편리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의 인쇄물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시장의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등에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2003년에는 국내시장의 수입대체와 해외시장의 진출을 통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은 수출 오더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몇 개국은 자국내 독점 공급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 채널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등 소재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필름테크의 맨 파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1958년 최초로 흑백인화지를 생산한 것이 한국사진공업의 대동입니다. 그 후 사진산업의 국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기업도 있고 많은 기간동안 투자를 한




기술개발 집중투자, 인쇄 · 출력용필름 국산화


미국 등 수출길 열어, 2003년 180억 매출목표

기업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시장 참여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필름테크는 이런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우수한 연구원과 한미필름테크의 맨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회사를 벤처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경영진과 72년 흑백필름을 개발한 강태성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한 연구요원들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생산기술 직원들 모두가 자기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애로도 많았을 텐데요.

 세계 메이저사들이 관련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물론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이라는 것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사실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농담 삼아 반기술자 다 되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관련분야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메이저사들이 수십년간 지배해 온 시장을 중소기업이 개척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경영자는 3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직원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일부라도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필름테크를 설립하면서부터 이 세가지들을 지키기 위해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가지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합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인쇄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IMF때 현금을 가지고도 필름을 구매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미필름테크가 성장했습니다. 세계 메이저사들과 당당하게 기술력으로 맞설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이 된 것이죠.

한미필름테크는 인쇄에 필수자재인 인쇄제판용 필름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저희 제품은 인쇄인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인쇄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이전에 국내 기술력을 평가절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실패했지만 벤처중소기업




인 한미필름테크는 해냈습니다. 인쇄산업의 발전은 생산자와 사용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미국 등에 대한 수출관련 얘기도 했습니다만 2003년은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쇄제판용 출력필름과 의료용 X-ray 필름의 매출액이 국내외시장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일본 등에 수출중인 사진인화지를 비롯한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의 매출액도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2003년 180억원, 2005년 535억원이 매출 목표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된 의료용 MRI 필름을 비롯해 계속해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부품소재기업으로 선정되어 급성장하고 있는 Inkjet Photo Paper의 세계시장에 최고의 제품으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입니다. 그리하여 메이저급의 감광필름회사, 세계 최고의 Digital 인화지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건강과 취미생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바쁜 일정 때문에 사실 주중에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직원들과 가까운 산을 찾기도 하고, 가끔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워낙 빠르게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 할려고 항상 책은 가까이 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인터뷰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인쇄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도로 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미필름테크를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준국장〉